

갈렙과 비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정직하고 담대한 보고와 비전을 제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CALEB), 그 중에서도 갈렙은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러한 갈렙(CALEB)을 회계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CALEB Accounting Corp.(佳立會計法人: 갈렙의 최초 회사)이 설립된 경위를 설명하고, 품었던 비전을 간증하는 이유는 물질을 가장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격려와 기도를 구하기 위하여서이다. 5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12명의 회계사로 1997년 3월 설립한 가립회계법인은 아직 벤처 회계법인에 불과하여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계속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꺾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1. 비전을 품기

나는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기질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성실하긴 하지만, 유약한 심성이라 어려운 일에도 곧 잘 좌절하고,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품이다. 이런 저런 약속 다 해 놓고는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찢찢매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지만, 싫증을 자주 내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찌다가 만만한 사람 만나면 짜증 내는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대로 어차피 크리스천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상 어느 사람들처럼 타락도 못할 것이고, 그럴 바에야 성령에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일 까 하여 이리 저리 기웃거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질 상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었고, 특별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굽어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손해 볼게 없다는 당연한 계산(?)하에 그렇게 하리라 작정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회계법인을 경영하되 기존의 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경영되는 회계법인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 나의 주저함과는 상관없이, 싫증 낼 틈도 없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2. 비전의 준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준비는 고사하고 돈 한푼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회계법인 설립이라는 당시로는 황당한 생각을 허락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12 명의 동역할 회계사들을 보내 달라는 기도제목으로 이어졌다. 95 년 12 월 한윤 회계사를 시작으로 97 년 2 월 서치원 회계사까지 정확하게 11 명, 나를 포함하여 12 명을 보내 주심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들로 말이다. 더욱이 30 명이상(12 명은 회계법인이 되기엔 불가능한 숫자였다.)이 되어야만 회계법인이 가능했던 공인회계사법마저 개정되어 한시적으로 10 명 이상으로도 회계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97 년 3 월 CALEB Accounting corp. (佳立會計法人)은 설립되고야 말았다.

리베이트, 향응성 접대비지출을 하지 않기로 하되, 그로 인해 수주가 없으면 해체해야 하나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12 명의 소규모 회계법인은커녕 100 명 이상의 대형회계법인들도 하기 힘든 그런 보람되고 굶직한 일들을 수주하게 하였다.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화프로젝트, 기획예산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SOC 분야) 경영진단, 서울대학병원의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이화대학 병원과 연세의료원의 경영진단,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프로젝트 등, 참으로 곧 해체되리란 주위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신입직원을 뽑아야 했고, 사무실을 확장하여야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망설이며 뒷걸음치는 나에게, 필요에 따라 위와같이 맛배기를 살짝살짝 보여 주시며 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셨다.

3. 비전을 정하기

각자 개성 있고 독특한 우리에게, 아직도 우유부단한 나에게, 이리 저리 핑계 대며 망설이는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궁금한 점은 이번에는 어떠한 맛 배기들로 우리를 격려하고 준비시키실까이고, 두려운 것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직도 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이런 저런 암시가 현실로 나타날까 봐 서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말로 경제계에 만연된 부정 부패와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천국을 지금 이땅에서 맛배기로 보여 주시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우리를 또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최고의 컨설팅법인, 가장 영향력 있는 정직한 회계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비전이며, 이러한 비전이 달성되면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은 물론 경제적인 필요도 상당 수준 채우게 되는 일석이조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다. 2005 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비전은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

4. 비전을 이루기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권리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CALEB 을 들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용납이 안되더라도 가슴으로 껴안는 행동이 반복되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만을 사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어 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권리포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 주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문

하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5. 새로운 비전 품기

2005 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비전인 국내최고의 컨설팅법인, 가장 정직한 회계법인은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다 하여 매달려야만 이를 수 있는 아주 야심 만만한 것이다. 그것이 달성되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축하며 즐거워하지만, 그 과정에 기여하지 못한 구성원은 위축되고 말 것이다. 아직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컨설팅법인, 가장 영향력 있는 정직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보다는 우리의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전은 달성되었을 때 모든 구성원이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은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 북미주와 유럽에 근거를 두고 많은 왜소한 국가와 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위있는 종합컨설팅기관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CALEB 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배기인 것이다.

* (주)갈렙 ABC 는 가립회계법인에서 2000 년 1 월에 분사하였다.